休 Mandala

‘마음쉼터를 가다’

⑦ 천안 호두마을 위빠사나 수행센터

항상 오롯이 깨어 있음이 바로 ‘행복’

천안=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명상’ 이라하면 조용한 곳에 앉아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진정한 명상은 우리가 숨쉬는 바로 이 순간 하나 하나 속에서 알아차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매 순간을 알아차림으로 계셨지만 생활 속의 우리들은 작은 순간이라도 잠시나마 알아차림의 과정에 들도록 하는 것이 명상의 역할이다.

서구 사회에서 이러한 생활 속 알아차림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곳이 있다. 바로 프랑스 보르도에 틱낫한 스님이 세운 수행공동체 플럼빌리지다. 세상의 번잡한 물결에서 벗어나 삶의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순간의 알아차림을 확장시킨다.

한국에서도 플럼빌리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천안 광덕리에 위치한 명상공동체 호두마을이다. 호두마을은 성숙된 후에도 수많은 과정을 거쳐 호두 알맹이를 내놓는 호두와 같다는 의미에서 붙은 수행공동체 마을 이름이다. 성숙된 가을에 따서 물에 오래 담가두어 외피를 썩히면 딱딱한 호두 피가 나온다. 이를 깨면 나오는 호두 알맹이처럼 스스로 내면의 진리를 깨우치라는 의미다.

차제가 있는 위빠사나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이곳은 평화롭다. 매 분기별 집중수행 때를 제외하고는 개별수행자들이 조용히 수행에 임하고 있다. 위빠사나 수행이 불교수행이지만 명상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상관없이 수행에 동참할 수 있다.

호두마을 가는 길서 명상에 잠기다

호두마을은 마을로 가는 길 부터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경부고속도로를 지나 논산천안고속도로를 달려 남풍세IC를 나온다. 교통의 중심지인 천안까지는 쉽게 가지만 이후의 길은 구불구불난 시골길이다.

광덕산을 바라보고 광덕리 초입에 들어서면 딱 ‘아 만만치 않구나’ 를 느끼게 된다. 산등성이를 끼고 국도를 30분 가량 달리면 작은 마을이 나온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길 사이로 역시 20분 가량을 달리면 호두마을이 나온다. 혹시 차량 바퀴가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주변에 핀 들꽃을 보지 못한다. 사색에 잠기기 좋은 길이기에 차 없이 가는 것을 권하고 싶다.

좁은 길 사이 사이에 있는 호두마을 이정표는 마치 어려서 보물찾기를 하듯 살피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찾는 이들의 마음을 변하게 한다. 즐거운 마음에 잠시 주변을 돌아보면 조금씩 물들어 가는 가을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주변의 풍경은 번잡하게 일어났던 마음의 티끌을 조금 가라앉힌다. 광덕산을 바라보고 올라가다 보면 호두마을이라는 명패와 함께 작은 벽돌집들이 길손을 반긴다. 차가 미처 가지 못하는 보행로에는 호두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B2면에 계속

호두마을 대수행홀에서 경행하는 수행자의 모습.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노소도게로 가는 길 〈上〉

B4 책세상
마크 엡스타인 〈진료실에서 만난 붓다〉

B5 문화
이송자의 한지 지화전

B6 학술
조선 후기 불상 발원문 망라하다